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10 일 (9 월 3 일, 2025)

토라 문: 끼 때체 (네가 나가는 때에)

주제: 잘못된 묵인

신명기 24:9 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 네 권능자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짜라트* (나병) (צָרַעַת /tzaraat)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코헨* (제사장)의 친척인 경우의 적용해야 될 *할라카* (법도)는 무엇입니까? 친척인 제사장이 환처를 보고 깨끗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여호와와의 토라를 믿고 순종하던 현인들의 기록을 통하여 정검합니다.

미드라쉬 설명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짜라트*로 인한 환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환처를 살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코헨이 자신의 몸에 있는 *짜라트*, 곧 피부에 드러난 환처에 대해 스스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코헨이 피부에 환처가 생긴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 13:5).

이는 코헨 그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코헨이 그의 환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정함이나 불정함을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황의 이해 당사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없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판결을 내릴까 하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절의 가르침은 사람안에 내재한 성질적 결함 요소를 분별해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여정을 반영합니다.

곧 신명기 24 장 9 절이 문자 그대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결점을 '본다'"는 것과 이러한 성향을 극복하는 대책법을 가르칩니다. 혹자는 아무리 사소한 결점이라 해도 타인의 결점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점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라쉬는 어떠한 죄 몫들로 *짜라아트*가 사람에게 찾아 오게 되는지에 관하여 묻습니다.

미드라쉬의 예를 봅시다: 한 남자 나무를 자르려고 친구에게 도끼를 빌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신이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합니다. 이유는 그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짜라아트*는 처음에 그의 집으로 즉시 찾아옵니다.

바이크라 라바 17 장 4 절의 미드라시에 따르면,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짜라아트*로 벌하실 때, 먼저 그의 집을 괴롭게 하십니다 (레 14: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엘로힘께서 그 후에, 그를 더 직접적 관여하시어 그의 옷과 육신이 괴로움을 만나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집에 *짜라아트*가 다가와 번지면, 제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합니다 (레 14:39 절). 도끼가 없다고 부인한

사람이 집 안의 모든 것을 치우면, 구경꾼들이 문제의 도끼를 보고 "이 사람의 인색함을 보았습니까? 도끼가 그의 소지품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땀가를 칩니다.

인색함 이외에 *짜라아트*로 벌을 받게 되는 죄과들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손 하라* (לשון הרע: 비방), 곧 "비방" 때문에 이 병환이 발생합니다. *짜라아트*로 벌을 받게 되는 죄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과들 중 하나로 *세기라* (segirah, 감금)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짜라아트* (tzaraat)의 한 종류입니다. 혹자가 이로 인한 불결의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좀 더 가벼운 불결함이며 판정 내려 주신 그 시공간을 묵묵히 견뎌냄으로서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손 하라* (lashon hara)의 죄과로 어려움을 지나는 사람은 *하크라타* (hachlatah, 확증)이라 하는, 더 심각한 부정의 *짜라아트* 상태인 죄과를 견뎌내며 그 후에 속죄를 받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죄는 치유되었을 때 필요한 순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금된 *메초라* (מצורע; 짜라트가 생긴 자)는 *미크베* (mikveh, 정결식)에 몸을 담그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확증된 *메초라*는 바이크라(레위기) 14 장에 묘사된 긴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드라쉬 (바이크라 라바 16 장 1 절 이하)는 "확증"된 *메초라*의 정화를 묘사하는 구절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를 *라손 하라*를 말하는 사람을 암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라손 하라*에서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을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 자신에게는 부서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짜라아트* (tzaraat)의 고통을 다룬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인도되어야 한다"(레 13:9).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짜라아트*의 고난을 겪고 지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들의 행실에 원인이 되는 내면의 영을 분별 받아야 합니다.

바알 섰 토브는 "사람이 자신 밖에서 보는 모든 결점은 사실 그 자신의 결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인들이 "다른 사람을 부적격하다고 선언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결점 때문에 그들을 부적격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을 때 표현된 정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단점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눈이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며 스스로 안에서 생긴 성질과 품격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 할 때에 혹자가 타인을 비판으로 사용한 관점은 그 자신을 불안케 하는 불안정한 영의 성향에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왜곡 됨 없이 스스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깨끗한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shalom.

참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전 2:9-10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기질이 주관하는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엘로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18-23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요 14:15